

## 종단, 실종자 가족아픔 함께 나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타종식 등  
서울 조계사 안산 진도  
전국 곳곳서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발빠르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불교계가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운동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과 조계종 노동위원회, 안산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진도사암연합회 등은 오는 4월 서울과 안산, 진도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위령제와 천도재, 추모 법회, 오체투지 행진, 위로 콘서트, 자장면과 떡국 공양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애방을 받고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세월호 인양 문제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이날 애방에서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허다운 학생의 어머니는 “참사 1년이 다 돼가는 데도 실종자 9명이 여전히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며 “4월16일 이전에 정부의 인양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팔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달라는 애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실종자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선체 인양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라며 “장마 전에 정부가 인양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루 속

히 인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의사를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14일 조계사에서 희생자들과 함께 하는 위령제를 봉행하고, 16일에는 전 사찰에서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타종을 계획하고 있다”며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가족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마음을 굳건히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애방에는 고창석, 양승진, 조

은화, 허다운, 남현철, 박영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등 9명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실종자 권혁규(4) 군의 이모인 베트남인 판녹한 씨가 총무원장 스님에게 실종자들이 빨리 돌아오길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아줬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판녹한 씨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화답했다. 조계종은 세월호 1주기인 오는 4

월16일 전국 사찰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귀환을 바라는 타종을 한다. 이에 앞서 오는 4월14일 오전10시에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봉행한다. 추모제에는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 스님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국제개발협력협의회 출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지구촌공생회 등 9곳  
노하우 공유...국내외 구조사업 발전 이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9곳이 참가하는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개발사업 확대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지구촌공생회, 아름다운동행, 월드비시코리아, 위드아시아, 더프라이스, 더프라이스 코리아, 젊은부처들, 엔지오비유디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를 교환해 역량강화를 도모하며, 공동의 애드보커시(Advocacy, 옹호)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자비사상을 실천해 평등하고 평화로

운 세상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단체 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훈련, 상호간 협력 사업 진흥 및 촉진, 주요 국제개발협력 사안에 대한 애드보커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연구와 홍보,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협의회장으로, 지구촌공생회가 운영위원장 단체, 위드아시아가 감사 단체, 더프라이스가 교육·연구분과장 단체, 나마스떼코리아가 기획·홍보분과장 단체, 아름다운동행이 교류·협력분과장 단체로 각각 선출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정환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지만 오늘 첫 총회를 시작으로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간의 공동의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 서울 구로에 불교전문서점 개원

희귀본 구해 주고 불교모임 공간도 제공

불교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서울 구로구에 최근 개점했다. 주인은 현대불교신문 취재부장을 역임한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김성우 대표. 김 대표는 지난 14일 구로변전소 앞 교차로 부근에 책방 ‘비움과소통’을 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동시에 하는 이 서점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불교계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절판된 책과 희귀본을 구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는 점이다. 김 대표의 불교전문서점 개점은 교보문고조차 불교 코너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다 불교서적의 절판 시기도 짧아 신간이 나온 지 1년만 지나

도 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 대표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다양한 불서를 갖추고 필요한 분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어 서점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서점에서는 또 불교 소모임을 가질 경우 장소와 차도 무료로 제공한다. 때때로 평화시장 등 중고시장을 찾아 절판된 불서를 모으고 있다는 김성우 대표는 “불교출판업계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불자들이 불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홈페이지 www.bns-mail.co.kr)  
안직수 기자 jsahn@bulgyo.com

## 민추본, 올해도 복讎 어린이 함께 키운다

영양식·의약품 ‘지원’  
도담도담 캠페인 전개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복讎 어린이 영양지원 ‘도담도담’ 캠페인을 추진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함께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복讎 어린이들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도담도담’ 캠페인을 전개한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어린아이가 잘 자라며 노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구분 없이 복讎 어린이들을 함께 키우고 남북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사찰 소유의 땅에서 수확한 쌀 수매 이익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통일할 작사업’과 저금통 분량을 신청한 학교 및 단체를 방문해 강의를 해주는 ‘찾아가는 불교통일교육사업’, ‘복讎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등 달기’를 통한 모금 사업, 초하루를 비롯한 주요 재일에 ‘도담도담’ 동참을 위한 기도 법회 및 현장 모금 등의 모금 사업들을 통해 후원기금을 마련하는 캠페

인이다. 후원기금은 복讎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위해 구충제와 수액세트를 구입 및 전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민추본 관계자는 “‘도담도담’은 정치 입념을 넘어 남북의 미래세대를 함께 키우고 통일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추본은 지난해 3월 파주 임진각에서 ‘도담도담’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700여명이 참여한 통일기원 건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 지하철역 개통으로 본 봉은사 1200년

13면

### 社告

#### 인도 빈곤층 무료 안과 수술지원 ‘국제광명나눔’ 활동 함께 해주세요

한국불교가 인류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인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안과 수술을 지원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영영 세상의 빛을 잃어가는 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아삼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광명의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월 7~8명씩 연간 100명의 백내장, 녹내장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통해 희망을 찾아주는 국제광명나눔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광명의 빛을 찾아주는 거룩한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주최 : 불교신문사·(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주관 : 세종파라미타·(사)한인교류회
- 문의 : 044)8720-8923



■ 동참계좌 : 후원계좌 국민은행 455801-04-330562 (예금주: 세종파라미타)

www.hwadamsup.com  
단체예약 및 문의  
☎ 02-6924-5150

## 화담숲의 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담和談’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원앙연못



자작나무숲



약속의 다리



모노레일